

고객과 함께하는 임업파트너

**Kofpi** for U

## 18.1 ~ 9월 남미 조림 및 목재산업 동향

**Kofpi** 한국임업진흥원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 KOFPI Paraguay S.A. -

## □ 주요 목차

<b>1) 조립 및 목재 산업 관련</b>			
1.	4백만 달러의 투자로 목재의 폐기물들로 에너지를 생성하다	(아르헨티나)	4
2.	2018년에는 목재수출이 2% 감소 예상	(우루과이)	4
3.	2017년 목재수출이 5.285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칠레)	5
4.	목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건설, 임산업의 새로운 주택건설 도전	(아르헨티나)	6
5.	SENASA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목재수출이 18% 상승했다.	(아르헨티나)	6
6.	칠레의 펄프회사 Arauco사와 CMPC사는 브라질로의 이전을 준비 중에 있다.	(브라질)	7
7.	Corrientes주에서 진행 중인 펄프 공장 설립 프로젝트	(아르헨티나)	7
<b>2) 산림 파괴 관련</b>			
1.	Mendoza 및 Pampa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총 23만ha가 소실되었다.	(아르헨티나)	9
2.	Oaxaca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4만2천ha 숲이 소실되었다.	(멕시코)	10
3.	파라과이 Chaco 지역에서는 매일같이 1.033ha에 숲이 파괴되고 있다.	(파라과이)	10
4.	좋은 의도로는 부족하다, 불법벌채는 아직 진행 중.	(아르헨티나)	11
5.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은 숲의 보존과 콩재배를 위한 농지 확대 전쟁	(아르헨티나)	11
6.	산림벌채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	12
7.	국제 산림의 날, 파라과이는 50%의 불법벌채를 기록했다.	(파라과이)	13
8.	산불로 인한 16,600ha 숲의 소실	(온두라스)	13
9.	225,000ha면적의 무차별한 산림벌채	(콜롬비아)	14
10.	매년 페루 아마존에서는 120,000ha가 없어져 간다.	(페루)	14
11.	기후변화 문제로 산림불이 증가하다	(칠레)	15
12.	코르도바지역은 약 10년 동안 10만ha의 천연림이 화재로 손실되었다.	(아르헨티나)	16
13.	Tomquist의 Ecocide : 시장은 100 그루 이상의 나무를 자르고 역사적 유산을 파괴했다.	(아르헨티나)	17
<b>3) 남미 산림정책 관련</b>			
1.	천연림 보호를 위한 우리의 생각	(아르헨티나)	18
2.	조립실행계획 : 시청에서는 각각의 다른 지역에 1,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아르헨티나)	18
3.	임업분야에서 건축물에서의 목재구조물 사용 확대를 위하여 내진설계 기준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칠레)	19
4.	파라과이, 5년간 정부에서 백만 헥타르를 재조림 할 것이다.	(파라과이)	20
5.	파라과이는 백만 헥타르의 재조림에 도전한다.	(파라과이)	20
6.	산림분야는 10만 헥타의 적지를 “가능한 한 빨리” 매워야 한다.	(파라과이)	22
<b>4) 기타</b>			
1.	멕시코에서 숲의 가치와 재적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다.	(멕시코)	23
2.	한국은 48백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협력 사업을 파라과이와 약속했다.	(파라과이)	23
3.	Misiones주에서 목재폐기물 사용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	(아르헨티나)	24
4.	섬유소 및 바이오매스 투자는 Corrientes 북쪽지역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아르헨티나)	24
5.	Kofpi와 파라과이 대학교 간에 협약	(파라과이)	25
6.	Infona와 Kofpi간에 협약 (Infona 공식 사이트)	(파라과이)	26
7.	Fepama(파라과이 목재협회는 바이오매스 인증서가 비용이 들지 않고 의무적이지 않는 것을 제안하다.	(파라과이)	27
8.	Helce에 따른 나무의 세계	(파라과이)	27
9.	BNF 임업 프로젝트를 위해 최대 12년 까지 연7.9%의 이자를 제공합니다.	(파라과이)	28
10.	INYM은 자사의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조립지에 대한 세심한 조사를 수행한다.	(아르헨티나)	29
11.	San Isidro에서 라플라타 강(Rio de la Plata)의 자연 경관을 반영한 생태경관 조립 실시	(아르헨티나)	30
12.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Abdo Benitez는 IFNONA의 새로운 청장 임명을 했다.	(파라과이)	31
13.	산림벌채의 허용이 아닌 토지 이용의 변화이다.	(파라과이)	32
14.	FEPAMA는 Abdo Benitez대통령의 임업분야 강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	(파라과이)	32
15.	2018 Expo Madera 개최	(파라과이)	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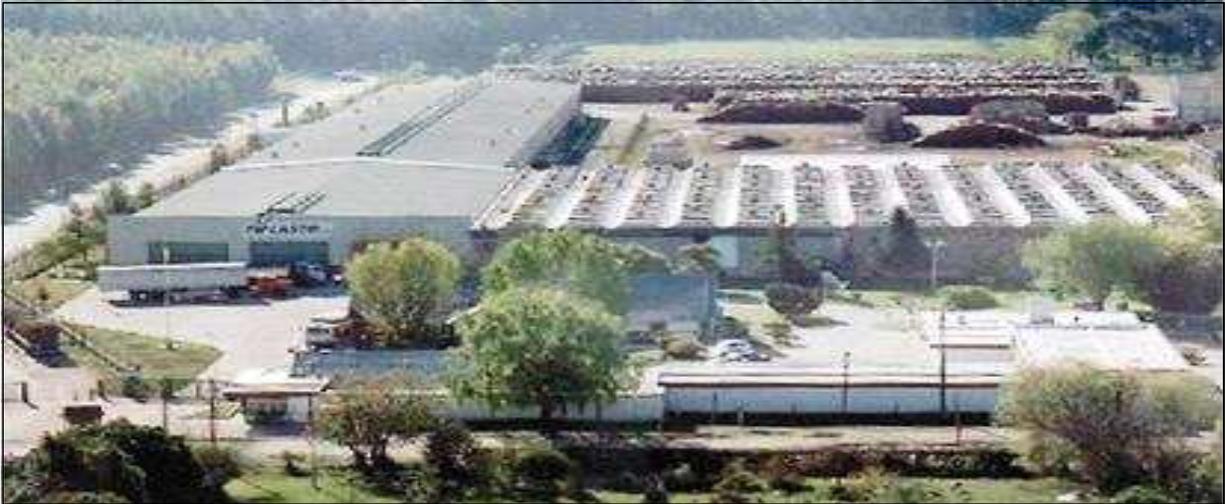
## 현지 신문 기사 요약 (테마별)

---

## 1) 목재 산업 관련

### 1. 4백만 달러의 투자로 목재의 폐기물들로 에너지를 생성하다.

(2018.1.8.일자 / 아르헨티나)



Fiplasto라는 업체는 목재 폐기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목재바이오매스용 보일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Plan Integral de Gestión de Residuos"을 발표했다. 이 업체는 보일러 설치를 위해 약 4백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목적은 증기 배출을 위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재폐기물의 재사용인데 향후 이 프로젝트로 목재폐기물의 100%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에서 북쪽에 위치한 Ramallo에 위치해 있고 이 지방의 목재가공업체에서만 매월 700ton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https://www.cronista.com/negocios/Invierten-us-4-millones-en-generar-energia-a-partir-de-residuos-de-la-madera-20180108-0006.html?mkt\\_hm=11&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s://www.cronista.com/negocios/Invierten-us-4-millones-en-generar-energia-a-partir-de-residuos-de-la-madera-20180108-0006.html?mkt_hm=11&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2. 2018년에는 목재수출이 2% 감소 예상

(2017.12.29.일자 / 우루과이)

2017년에 비해 금년에는 목재 수출이 2%정도 감소 할 예정이다. 이는 셀룰로오스 분야는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종이 수출의 70%를 담당했던 Fanapel업체의 폐쇄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농목축협회(OPYPA)에 따르면 2017년에는 목재 및 제조품 판매에서 전년 대비 0,9%가 하락하였고 2017년 최종 임산업 수출액은 1.6%하락한 1,503백만불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산업 수출액의 85%를 차지하는 셀룰로오스 수출액은 약 1,242백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대비 3.7%가 늘어난 2,606백만ton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 외 제재목 91백만 달러, 합판 61백만 달러, 칩 59백만 달러, 종이 및 박스 32백만 달러, 유칼립투스 원목 18백만 달러 순으로 집계되었다.

[https://www.elobservador.com.uy/estiman-que-las-exportaciones-forestales-caeran-2-2018-n1154788?mkt\\_hm=14&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s://www.elobservador.com.uy/estiman-que-las-exportaciones-forestales-caeran-2-2018-n1154788?mkt_hm=14&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3. 2017년 목재 수출은 5.285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8.1.9.일자 / 칠레)



중양은행에 따르면 2017년 목재수출액은 2016년 대비 1%가 증가한 5,285백만 달러로 기록됐으나 2014년 수출액 6,094백만 달러에 아직도 매우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2017년 주요 수출 항목 중 유칼립투스 펄프는 2016년 대비 16.8%, 라디에타 소나무 펄프는 15.4%가 증가했고, 목재칩 또한 7%나 증가한 수치이다.

[http://www.lignum.cl/2018/01/09/exportaciones-forestales-habrian-llegado-us5-285-millones-2017/?mkt\\_hm=15&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www.lignum.cl/2018/01/09/exportaciones-forestales-habrian-llegado-us5-285-millones-2017/?mkt_hm=15&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4. 목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건설, 임산업의 새로운 주택건설 도전.

(2018.3.4.일자 / 아르헨티나)

정부와 목재산업체들에 따르면 2018년 한해는 목조주택과 관련된 회사와 제재목 생산자들에게 큰 한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몇 년 동안은 목재산업이 크게 하락했으나 지난 해부터 시작된 정부와 목재산업체들과의 최종 합의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매년 7천개의 주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 적자 해소에 도움을 주며, 목재산업 또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http://misionesonline.net/2018/03/04/la-construccion-sostenible-madera-nuevo-desafio-habitacional-pais-manos-la-foresto-industria/?mkt\\_hm=9&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misionesonline.net/2018/03/04/la-construccion-sostenible-madera-nuevo-desafio-habitacional-pais-manos-la-foresto-industria/?mkt_hm=9&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5. SENASA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목재수출이 18% 상승했다.

(2018.3.12.일자 / 아르헨티나)

SENASA(농산물관리청)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총 80,287ton의 목재를 수입했고, 이는 2016년 67,912ton 대비 18%나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총 수출품 중 61,621톤은 소나무이며 (2016년 기준 40.634톤), 일반목재 10,716톤(2016년 10.634톤) 그리고 꾀브라초는 2.643톤(2016년 3.238)으로 분석됐다.

SENASA에 등록된 자료에 보면, 소나무 수출 기록 기준 중국으로 36,612ton, 베트남 10,204ton, 멕시코 3,516ton이 수출되었으며, 그 외에는 미국, 도미니카 공화국, 브라질 등으로 수출되었다.

꾀브라초의 경우 인도 807ton, 태국 400ton, 독일 368ton 외 러시아, 멕시코, 볼리비아 등으로 수출됐다.

추가로, 2017년 동안 6,247,606ton의 펠릿을 생산하여 수출하였는데 이는 전년보다 13,62%증가했고, 이와 함께 포장재, 목재상자 등 다른 관련 제품들의 수출량도 동반 상승했다.

[http://curi.nearural.com/ampliar.php?mkt\\_hm=14&id=39738&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curi.nearural.com/ampliar.php?mkt_hm=14&id=39738&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6. 칠레의 펄프회사 Arauco사와 CMPC사는 브라질로의 이전을 준비 중에 있다.

(2018.4.12.일자 / 브라질)

Itau사(브라질 최대 금융사)의 철강, 광업, 제지 및 섬유 분석가 Marcos은 칠레의 펄프업체 Arauco와 CMPC 2업체가 브라질에 쉽게 진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칠레는 브라질에 비해 목재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고 브라질은 아직 기회가 많아 칠레 목재 가공 업체들이 브라질로 진출하길 희망해 브라질 목재산업이 성장될 것이라고 한다.

<이하 주요 인터뷰 내용>

질문1\_무엇 때문에 펄프가격이 상승했나?

답변) 2가지의 주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공급제한이다. 인도네시아의 펄프회사 APP와 April사가 운영문제로 인해 315,000ton의 생산량이 감소했다. 두 번째, 브라질 역시 생산량 감소가 있었고 또한, 유럽의 겨울로 인해 물류 운송에서 목재 이용이 제한되었다.

질문2\_무엇 때문에 펄프수요가 유지되나?

답변) 중국 내 기업들은 작년 말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종이 또는 상자를 포장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http://www.lignum.cl/2018/04/09/itau-probablemente-arauco-cmpc-buscaran-agregar-capacidad-brasil/?mkt\\_hm=13&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www.lignum.cl/2018/04/09/itau-probablemente-arauco-cmpc-buscaran-agregar-capacidad-brasil/?mkt_hm=13&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7. Corrientes주에서 진행 중인 펄프 공장 설립 프로젝트

(2018.8.5.일자 / 아르헨티나)

Corrientes 및 Misiones 주 출신의 6 명의 사업가 및 전문가 그룹이 미국과 유럽의 두 투자 그룹과 협의하여 셀룰로오스 펄프 및 크래프트 라이저(craftliner) 제지 공장 (상자 포장에 사용되는 것)을 설치하기로 협의했다.

이것은 Isyry Cuati 프로젝트로서, "종이의 강"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이 공장은 Corrientes주에 있는 Ituzaingó 마을에 위치하며, 소나무 조림목을 통해 펄프 또는 크래프트 라이저(craftliner) 종이 50 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

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출범한 마지막 셀룰로스 펄프 공장은 1983년 Misiones주의 알토파라나지역이었고 국가의 기부금으로 만들었다.

Ysry Cuatiá는 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예상되는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될 전망이다. 산림 컨설턴트 Gustavo Cetrángolo는 공장의 최종 구성에 따라 그 개발이 구체화된다면 8 억 달러에서 1,000 억 달러 사이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프로젝트의 준비를 위해 Cetrángolo 및 기타 그룹 구성원이 기계류 분석을 위해 유럽, 중국 및 핀란드로 여러 차례 방문했다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아르헨티나는 산업화, 수출 및 성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그는 요약했다.



<https://www.lanacion.com.ar/2159234-proyectan-instalar-una-planta-de-celulosa-en-la-provincia-de-corrientes>

## 2) 산림 파괴 관련

### 1. Mendoza 및 Pampa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총 23만ha가 소실되었다.

(2018.1.6.일자 / 아르헨티나)



최근 Mendoza지역에서 약 6일 동안 지속된 산불로 인해 10만ha가 소실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죽고, 전봇대의 파손으로 전기가 끊어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Mendoza지역 환경부는 현재 까지도 산불 진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강한 바람으로 인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Pampa지역도 비슷한 상황인데 현재까지 13만ha가 소실되어 인근 농장주 및 토지 소유자들은 산불 확대를 막기 위하여 방화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산불진화 시 안전을 기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 해 12월 29일에 2명의 청년이 산불 진화를 위한 방화선 작업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http://www.ambito.com/908543-incendios-forestales-en-mendoza-y-la-pampa-se-quemaron-mas-de-230-mil-hectareas-de-campos?mkt\\_hm=17&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www.ambito.com/908543-incendios-forestales-en-mendoza-y-la-pampa-se-quemaron-mas-de-230-mil-hectareas-de-campos?mkt_hm=17&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2. Oaxaca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4만2천ha 숲이 소실되었다.

(2018.1.2.일자 / 멕시코)



멕시코 산림청에 의하면 Oaxaca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중 90% 이상은 화톳불, 담배꽂초, 지역주민의 실수 등 이라고 한다. 267회의 산불이 발생했고 총 42,078ha의 숲이 소실되었다. 또한 지역 농민들은 1~5월 중 집중적으로 화전이 발생하지만 이때 방화선, 시간, 바람의 방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을 내기 때문에 큰 화재가 발생한다.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벌채 시 제거되지 않는 가지, 목재조각 등이 연료 역할을 해 큰 산불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로 Oaxaca지역은 전 세계에서 산불로 인한 피해 발생 면적이 5위나 되었다.

[https://www.nsssoaxaca.com/2018/01/02/incendios-en-oaxaca-han-devastado-42-mil-htas-de-bosques/?mkt\\_hm=3&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s://www.nsssoaxaca.com/2018/01/02/incendios-en-oaxaca-han-devastado-42-mil-htas-de-bosques/?mkt_hm=3&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3. 파라과이 Chaco 지역에서는 매일같이 1.033ha에 숲이 파괴되고 있다.

(2018.2.3.일자 / 파라과이)

늘 들리는 전기톱 소리는 Chaco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일상이 되었다. Guyra Paraguay(생물학 보호 기관)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까지 매일 1.033ha의 숲이 파괴되고 있고 총 61.748ha가 피해를 봤다고 한다. 이는 하루 기준 산림 손실률(1.033ha/일)로 남미 내 1위에 해당하며 그 뒤로 아르헨티나 907ha/일

블리비아 119ha/일 순으로 조사되었다.

[http://www.ultimahora.com/el-chaco-paraguayo-pierde-1033-ha-bosques-dia-n1131812.html?mkt\\_hm=3&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www.ultimahora.com/el-chaco-paraguayo-pierde-1033-ha-bosques-dia-n1131812.html?mkt_hm=3&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4. 좋은 의도로는 부족하다, 불법벌채는 아직 진행 중.

(2018.2.15.일자 /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승인된 조림목재 이용 의무화, 보호 구역 지정, 불법벌채 금지 법령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콩 산업이 확장되면서 엄청난 면적의 숲이 농지로의 산림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파라과이 차코지역에서는 매일 약 500ha의 산림이 벌채되었고 (주로 목초 채배), 산불로 인해 약 26천km<sup>2</sup>에 면적이 피해보거나 파괴되었다. 주 벌채 이유로는 불법 목재 판매, 콩 채배, 가축을 위한 목초 채배 등이었다.

[https://elpais.com/elpais/2018/02/13/planeta\\_futuro/1518519992\\_956946.html?mkt\\_hm=1&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s://elpais.com/elpais/2018/02/13/planeta_futuro/1518519992_956946.html?mkt_hm=1&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5.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은 숲의 보존과 콩채배를 위한 농지 확대 전쟁 중

(2018.2.7.일자 / 아르헨티나)

천연목 보호 법령은 농업에 맞서 아무런 결과없이 10년째를 맞이했다. 만약 보스턴, 도쿄, 시카고 등 세계의 주요 대도시들이 콩, 옥수수, 해바라기 등으로 덮여 있거나 그 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오염이 심한 땅에 살고 있

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8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다. 현재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에서 75만ha가 농업 또는 가축을 위한 목초재배지로 전용되었고 산림벌채로 인해 위에서 명시한 도시들과 같은 면적의 숲이 파괴되었다고 그린피스 관계자 Hernan Giardini가 말했다.



[https://elpais.com/internacional/2018/01/05/argentina/1515168727\\_048792.html](https://elpais.com/internacional/2018/01/05/argentina/1515168727_048792.html)

## 6. 산림벌채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2018.3.11.일자)

열대우림의 파괴는 지구 표면온도 상승에 영향을 준다. 최근 Nature지에 게재된 연구조사에 따르면 지표면의 산림면적 변화는 태양복사열을 반사시키는 특성을 변화시켰다.

Ikiam아마존 대학의 연구자인 Luis Maisincho씨는 시간당 지표면이 받는 태양복사열은 일정하다고 설명하고 산림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는 지표면의 흡수량과 태양복사열의 반사 용량을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식물과 얼음이 없는 특정 지표면에서는 대부분의 태양복사열을 흡수하고 온도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한다. 추가로 3명의 유럽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0~2015년까지 산림면적 감소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온도를 섭씨 0.23도나 상승시켰다고 한다.

[http://www.elcomercio.com/tendencias/deforestacion-clima-temperatura-tierra-bosques.html?mkt\\_hm=6&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www.elcomercio.com/tendencias/deforestacion-clima-temperatura-tierra-bosques.html?mkt_hm=6&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7. 국제 산림의 날, 파라과이는 50%의 불법벌채를 기록했다.

(2018.3.21.일자 / 파라과이)

매년 3월 21일은 국제 산림의 날이면서도 파라과이 내 각각의 환경 단체들이 국가의 환경 및 산림정책, 불법벌채 등에 대한 부정적인 테마를 발표하는 날이기도 한다.

2012년 유엔에서 열린 총회에서 매년 3월 21일은 국제 산림의 날로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파라과이는 현재 불법벌채로 인해 기후변화 및 잦은 홍수 발생으로 인해 나라에 큰 영향을 준다고 Guyra Paraguay대표 Eder Ortiz가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현상은 파라과이의 상징인 재규어를 멸종 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http://www.ultimohora.com/dia-internacional-los-bosques-paraguay-registra-50-deforestacion-n139194.html>

## 8. 산불로 인한 16,600ha 숲의 소실

(2018.4.5.일자 / 온두라스)

올해 1~4월까지 360차례의 산불이 났는데 이는 작년의 같은 시기에 비해 378회 대비 4,7%가 감소했다고 한다.

ICF(산림보호청)에 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6,623ha의 면적이 산불로 인해 소실되었다고 한다. 16차례의 산불로 Gracias a Dios 지역에서 3,857ha, 118차례로 2,822로 Tegucigalpa지역이 피해를 봤고, 그리고 3월에만 기록된 261번의 산불로 총 12,512ha가 소실되었다.

ICF에서는 2017년에는 총 892번에 산불이 났는데 이로 인해 총 36,000ha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ICF는 주민들에게 숲의 보존을 당부하고 있으며 산림과피 행위를 하는 자가 발견된다면 즉시 신고해달라는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매년 112,492km<sup>2</sup>면적에서 50,000ha의 숲을 불법벌채 및 산불로 인해 잃어간다고 한다.

<http://www.trt.net.tr/espanol/ciencia-y-tecnologia/2018/04/05/honduras-mas-de-16-600-hectareas-d>

## 9. 225,000ha면적의 무차별한 산림벌채

(2018.4.27.일자 / 콜롬비아)

Industrial de Santander 대학 교수들의 조사의 따르면, 현재 콜롬비아는 892,000ha 천연림이 존재하는데 이 중의 4분의1이 지난 20년 동안 파괴되었다고 한다. 불법벌채가 이뤄진 생태계 지역은 Santander tales, Yariguies , Rios Horta 및 Minero 등이라고 한다.

[http://caracol.com.co/emisora/2018/04/27/bucaramanga/1524783062\\_726154.html?mkt\\_hm=6&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caracol.com.co/emisora/2018/04/27/bucaramanga/1524783062_726154.html?mkt_hm=6&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10. 매년 페루 아마존에서는 120.000ha 면적의 숲이 파괴되어 간다.

(2018.5.8.일자 / 페루)

불법벌채는 페루 아마존에게 암 같은 존재이다.

환경청-국가 산림보존 프로그램에 의하면 2001~2016년까지 페루 아마존에서는 총 1.974.209ha, 즉 매년 123.888ha의 면적의 숲이 파괴되었다.

농업, 목축업, 불법벌채, 불법 광업, 마약밀수자들이 아마존 숲을 파괴하고 있고, 만약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연간 300,000~400,000ha의 숲이 소실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2017년 한해에만 143,000ha의 아마존 숲이 파괴됐고 이는 200,000개의 축구장 면적과 같다고 AFP (연금 기금 협회) 책임자 Cesar Calmet이 PNCB (국가 산림보존 프로그램)에게 보고했다.

[http://www.eluniversal.com/estilo-de-vida/8580/120000-hectareas-bosques-desaparecen-amazonia-peruana-cada?mkt\\_hm=1&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www.eluniversal.com/estilo-de-vida/8580/120000-hectareas-bosques-desaparecen-amazonia-peruana-cada?mkt_hm=1&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11. 기후변화 문제로 산림불이 증가하다.

(2018.5.28.일자 / 칠레)



Portland State대학 지리연구원 Andres Holz은, 낙뢰에 의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변화는 에너지가 바다에서부터 저장되어 대기로 전달되고, 이것이 대류 폭풍과 낙뢰 등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겨울에는 습기로 인해 낙뢰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지만, 여름에는 땅이 건조하여 낙뢰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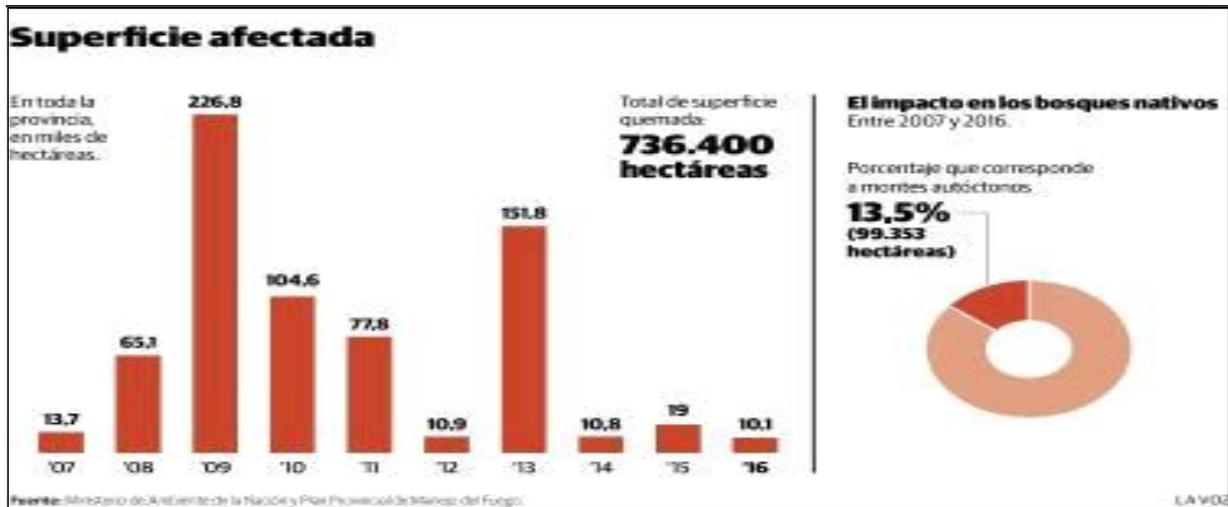
CONAF(칠레 산림 협회)는 20세기까지 산불을 발생하는 원인 중 낙뢰를 큰 요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낙뢰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15년 동안 낙뢰로 인한 산불이 240건 달한다고 CONAF 산불 관리부 팀장 Alfredo Mascareno는 말했다.

[http://www.lignum.cl/2018/05/28/cambio-climatico-aumenta-incendios-forestales-provocados-rayos/?mkt\\_hm=5&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www.lignum.cl/2018/05/28/cambio-climatico-aumenta-incendios-forestales-provocados-rayos/?mkt_hm=5&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12. 코르도바주에서 약 10년 동안 10만ha의 천연림이 화재로 손실되었다.

(2018.7.7.일자 / 아르헨티나)



화재는 산림 파괴의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지역 천연(자생)수종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아르헨티나 ‘국가 환경 지속 가능 발전 조사’에 따르면 코르도바주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화재로 인한 천연림 손실이 두 번째로 많은 주이다. 정확한 누적 합계는 99,353ha이다.

규모면에서 코르도바주 수도인 코르도바시 면적인 56,000ha의 거의 두 배, 즉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5배에 이른다.

10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코르도바주에서 736,400ha에 영향을 주었고, 화재관리 지방계획의 기록에 따르면 약 10만개의 숲이 전체 산림의 13.5%를 차지한다고 한다.

10년전 제정된 국가법 제26.331(천연림의 최소한의 보호)의 40조에서는 천연림으로 분류된 지역이 화재로 피해를 받으면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다른 용도로의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원 식생이 복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http://www.lavoz.com.ar/ciudadanos/por-el-fuego-cordoba-perdio-100-mil-hectareas-de-bosque-nativo-en-10-anos>

### 13. Tornquist의 Ecocide : 시장은 100 그루 이상의 나무를 자르고 역사적 유산을 파괴했다.

(2018.9.8.일자 / 아르헨티나)



Tornquist는 주 광장의 조립을 위한 심각한 논쟁을 하고 있다. 지방 시장 세르지오 보르도니(Sergio Bordoni)는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리모델링 계획을 제시했다. 야당과 수많은 이웃들은 무차별적인 벌채를 비난하면서 그것은 "의장의 변덕"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100 그루 이상의 나무가 제거되었으며 국립공원 박물관 및 기념물위원회 (National Museum of Museums and Monuments)가 역사적인 중요성을 표명한 것들이 제거되었다.

정치 단체 '인민 전선 2월25일'은 "나무는 적이 아니다. 공공 공간의 자연 및 역사적 유산을 비합리적으로 줄이지 않고도 시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보르도니 (Bordoni)는 라디오에서 "많은 위험을 초래하는 나무가 제거되고 있다. 우리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몇몇 나무는 경우에 따라 광장의 건물 시설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광장을 새롭게 하고, 나무를 단일화하고 다른 느낌을 부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런 식으로 "관광객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킬 것 입니다". 라고 언급했다.

[https://infocielo.com/nota/95844/ecocidio\\_en\\_tornquist\\_denuncian\\_que\\_el\\_intendente\\_talo\\_mas\\_de\\_100\\_arboles\\_y\\_destruyo\\_patrimonio\\_historico/](https://infocielo.com/nota/95844/ecocidio_en_tornquist_denuncian_que_el_intendente_talo_mas_de_100_arboles_y_destruyo_patrimonio_historico/)

### 3) 산림정책 관련

#### 1. 천연림 보호를 위한 우리의 생각

(2018.1.4.일자 / 아르헨티나)

천연림 회복 국가 계획의 수행뿐만 아니라 현재의 천연림 보호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 동안 불법 벌채율을 14% 감소시키는데 성공했고 이러한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숲은 개발의 장애물이 아니고 숲의 보존은 광범위한 농업이나 목축과 같은 다른 생산업에 비해 편리하여 우리가 좋은 표본이 되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연림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원적 가치를 갖는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전체 숲의 에너지로서의 가치는 아르헨티나 전체 석유 매장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천연림의 가치는 매우 높다. 팔로산토, 께브라쵸, 알가로보, 세드로 등의 목재는 천연림의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 또한, 산림 활동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훼손된 숲의 회복을 위한 국가 산림계획”은 면적 확장과 더불어 천연림의 회복, 토양 회복, 홍수 대비, 지구온난화 대비 등의 목적이 담길 것이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다양한 지역 새로운 구역 등에서 시행됐고 2023년까지 매년 2만ha의 천연수종 조림을 수행 할 것이다.

[http://www.elcomercial.com.ar/index.php?mkt\\_hm=7&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41861:nuestro-ideal-para-la-ley-de-bosques&catid=58&Itemid=59&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www.elcomercial.com.ar/index.php?mkt_hm=7&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41861:nuestro-ideal-para-la-ley-de-bosques&catid=58&Itemid=59&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2. 조림실행계획 : 시청에서는 각각의 다른 지역에 1,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18.8.3.일자 / 아르헨티나)

새롭고 다양한 종으로 오래된 종을 대체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과 병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존하여 기후 변화 방지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우리(아르헨티나 Santa Fe주도 Santa Fe시)는 “조림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산림 조사 및 시민의 요청에 기초한다. 녹색공간부서에서는 이미 도시 내 각각의 지역에 약 1,000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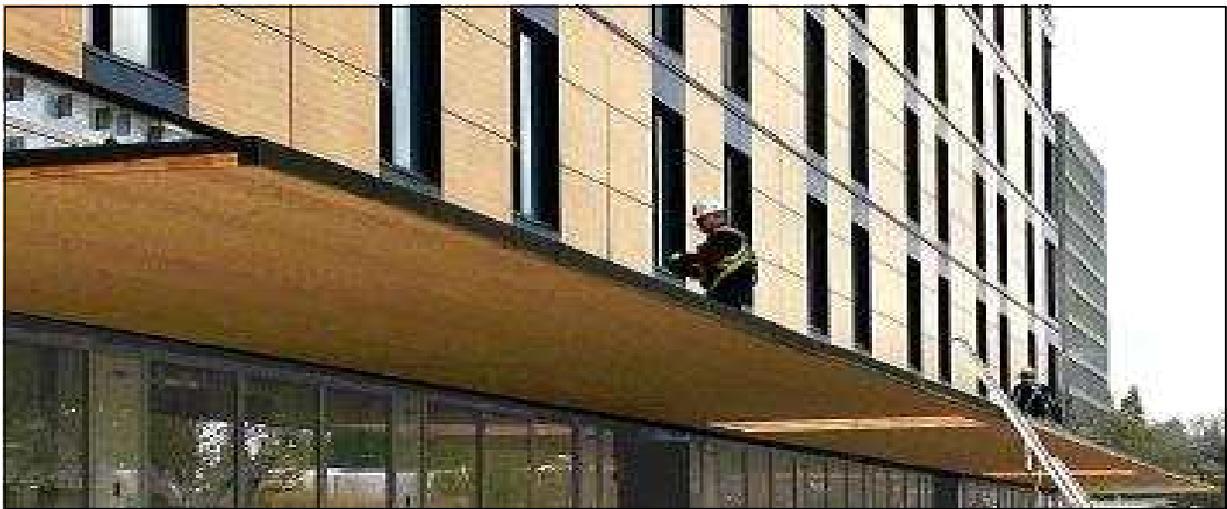
시청의 기술자는 식재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각 나무는 잦은 관수가 시행되고 병해충(특히 개미) 방제를 위한 조치와 목재 지지대가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도심 내 나무는 산소, 그늘, 신선함, 아름다움, 생물 다양성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필터"의 기능 갖는다.

<https://www.sinmordaza.com/noticia/536104-avanza-plan-de-forestacion-el-municipio-planto-1-000-arboles-en-distintos-barrios.html>

### **3. 임업분야에서 건축물에서의 목재구조물 사용 확대를 위하여 내진설계 기준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2018.8.9.일자 / 칠레)



산티아고 - 일본의 스미토모산림기업(Sumitomo Forestry)은 몇 달전 2041년에 90% 이상이 목재구조물로 이루어진 70층 규모의 타워를 건설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칠레에서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임업분야에서 건물 건축 시 목재 이용을 장려해 왔다. 특히 오늘날 주택의 80% 이상이 주로 시멘트와 철근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임업분야에서 건설분야 업체들과 이미 협의해온 내용 외 또 다른 결정적인 사항을 추가하려고 한다고 한다. 카톨릭대학 주체로 구성된 CIM UC(UC 목재혁신센터), 칠레목재협회, 산림 및 목재 기업들은 높은 건축물에 목재구조물 사용 확대 허용을 위하여 칠레의 내진설계 기준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emol.com/noticias/Economia/2018/08/09/916365/Rubro-forestal-pedira-cambiar-norma-sismica-para-aumentar-uso-de-madera-en-edificios-b.html>

#### 4. 파라과이, 5년간 정부에서 백만 헥타르를 재조림 할 것이다.

(2018.9.7.일자 / 파라과이)

파라과이 산림청(INFONA)의 새로운 청장 Cristina Goralewski는 현 정부의 임기 5년 내에 백만 헥타르 재조림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백만 헥타르를 심을 것 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도전입니다.”라고 국영 TV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녀는 산림 벌채 법안의 일부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파라과이 대통령 Mario Abdo Benítez가 의장을 맡은 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림 벌채와의 싸움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그녀는 “파라과이는 전 세계 산림의 측면에서 삼림 벌채에 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으며 그녀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법령 7702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현 대통령 Abdo Benítez은 지난달 전 정부 대통령 Horacio Cartes의 이전 정부가 발표한 임업 법령의 폐지를 발표했다. 환경 단체들은 천연림 보호 구역의 보호를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https://contactohoy.com.mx/paraguay-busca-reforestar-un-millon-de-hectareas-en-cinco-anos-de-gobierno/>

#### 5. 파라과이는 백만 헥타르의 재조림에 도전한다.

(2018.9.9.일자 / 파라과이)

그들의 목표는 5년 후에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라 발표했다.

INFONA청장 Cristina Goralewski는 파라과이 TV와의 인터뷰에서 5년 내에 100 만 헥타르의 재조림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커다란 도전이지만 국가 정책과 같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향후 5년간 1천만 헥타르 규모를 심을 것이며, 법을 조정하고 우리가 이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조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도전입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녀는 대통령이 시민 연설에서 산림 벌채에 관해 언급했으며, 전 대통령들은 이 주제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었으며, 이는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 문제를 정부 정책으로 간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각 기관에 보안성과 투명성을 제공해 나가고 정책

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오늘날 산림 GDP가 1.5~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조림 및 재조림 법이 발효 된 1995 년 이래로 "조림면적이 오직 12만~15만 헥타르 밖에 되지 않으며, 이제는 우리가 조림을 더욱 추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https://www.lanacion.com.py/pais/2018/09/09/buscan-reforestar-1-millon-de-hectareas-en-paraguay>

## 6. 산림분야는 10만 헥타의 적자를 “가능한 한 빨리” 메워야 한다.

(2018.9.17.일자 / 파라과이)



아순시온, IP - 파라과이는 현재 조림을 위해 지정된 13만 헥타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목재 산업의 수요와 관련하여 약 10만 헥타르의 적자가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차이는 “가능한 한 빨리” 메워야 한다고 했다.

파라과이 목재 협회(Fepama)의 Manuel Jiménez 대표에 따르면, 목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작업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약 250,000 헥타르의 숲이

필요하며 기존의 적자는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Jiménez는 조림 및 재조림에 관한 회담이 일요일에 성공적으로 끝난 Expo Madera 2018의 중심 주제라고 보도했다. 그는 "우리 연맹은 전체적으로 성공적 이었으며, 대중의 참여도가 좋았다."고 말했다.

파라과이에서는 산업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의 44 %가 바이오매스에서 발생하며, 이는 산림 자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https://www.ip.gov.py/ip/rubro-forestal-tiene-un-deficit-de-100-000-hectareas-a-cubrir-lo-antes-possible/>

## 4) 기 타

### 1. 멕시코에서 숲의 가치와 재적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다.

(2018.2.16.일자 / 멕시코)



멕시코의 과학자들이 입목의 재적과 목재 생산품을 추정하기 위한 입목 또는 숲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생물학적 통계방법을 개발했다고 과학 및 기술 국가위원회(CONACYT)에서 2018년 2월 16일 발표했다.

기술혁신청(ITES)의 개발자들은 이 통계학적 방정식이 산림기술자와 생산자들이 그들의 조림지가 어느 정도의 재적을 갖고 있는지, 산림 경영 및 토지 수준을 통한 최적의 벌채방법은 무엇인지, 최고의 벌채 주기는 언제인지 등을 알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elcomercio.com/tendencias/bosques-sistema-medicion-cientificos-mexico.html?mkt\\_hm=2&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www.elcomercio.com/tendencias/bosques-sistema-medicion-cientificos-mexico.html?mkt_hm=2&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2. 한국은 48백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협력 사업을 파라과이와 약속했다.

(2018.4.20.일자 / 파라과이)

파라과이는 한국 정부로부터 4천8백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협력을 받을 것이다. 그 중 2천8백만 달러는 상환을 불필요하다. 이 자금은 빈곤감소, 제조업, 에너지 효율 증가, 기후변화 등의 프로젝트로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한국의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된 GCF의 19차 회의 동안 결정

된 사항이다. 이 회의에서 파라과이 정부는 세 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는데 그 중 “빈곤퇴치, 재조림, 에너지 및 기후변화”로 25백만 달러, “파라과이의 에너지 산업의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를 위해 3백만 달러가 사용될 것이고 그 외의 20백만 달러는 STP(국가계획기술청)과 재무부 등이 참여한 국가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하게 되며 일정 기간 동안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다.

[http://www.lanacion.com.py/politica\\_edicion\\_impresa/2018/03/06/corea-otorga-a-paraguay-una-cooperacion-de-us-48-millones/](http://www.lanacion.com.py/politica_edicion_impresa/2018/03/06/corea-otorga-a-paraguay-una-cooperacion-de-us-48-millones/)

### **3. Misiones주에서 목재폐기물 사용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

(2018.4.23.일자 / 아르헨티나)

독일과 아르헨티나 간에 협업을 위해 독일의 목재연구청 관계자 Claudia Shirp는 아르헨티나 Imam(미시온주 물질연구소) 전문가들과 함께 아르헨티나 포사다스 지역에서 페인트, 접착제 및 바이오플라스틱용 고분자를 얻기 위한 목재폐기물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2주간의 회의를 가졌다.

2017년 Imam 소장 Maria Crisitna와 박사 장학생 Juan Manuel Dominguez은 독일의 목재연구청에서 업무와 연수에 참여 했고 목재 바이오매스로부터 접착제를 개발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에 독일에서부터 영감을 얻고, 독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아르헨티나 연구실에도 독일과 같은 시설을 설치해 목재 폐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한다.

[http://curi.nearural.com/ampliar.php?mkt\\_hm=11&id=39946&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curi.nearural.com/ampliar.php?mkt_hm=11&id=39946&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4. 펄프 및 바이오매스산업 투자는 Corrientes 북쪽지역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018.5.28.일자 / 아르헨티나)

Corriente 지역에서는 바이오매스와 펄프산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매스산업 투자는 지역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중국 기업들과도 펄프산업 투자를 위해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고 해당지역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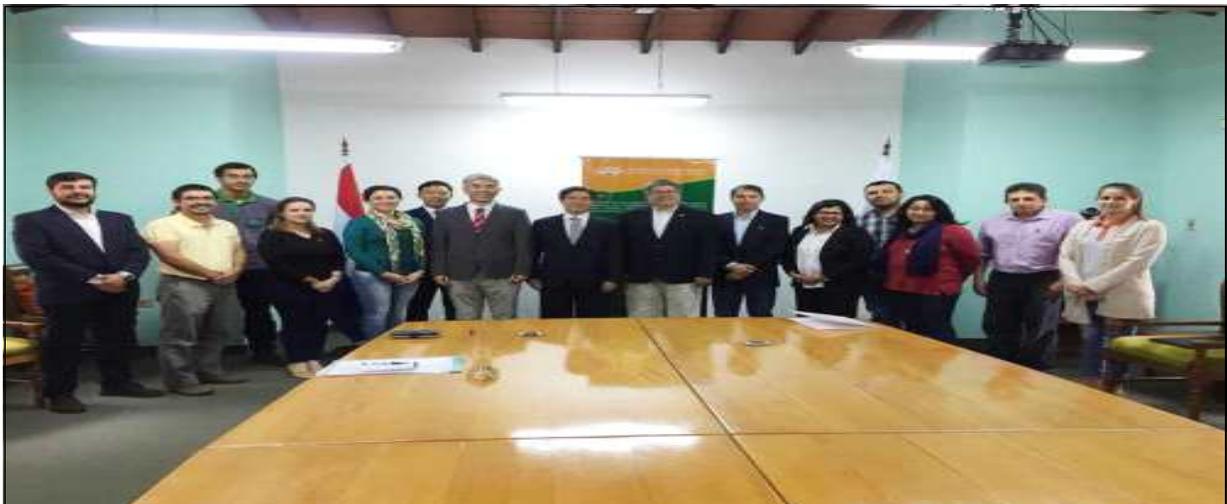
Jorge Vagas씨가 말했다.

바이오매스 투자는 Santo tome지역에 있는 Pomera회사에게 2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펄프 투자는 현재 중국 투자자들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ituzaingo 지역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은 일반 종이제조 산업에, 그리고 4억 달러는 포장용지 제조 산업을 위해 투자될 예정이라고 한다.

[https://misionesplural.net/2018/05/28/inversiones-en-celulosa-y-biomasa-transformaran-el-norte-de-corrientes/?mkt\\_hm=11&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s://misionesplural.net/2018/05/28/inversiones-en-celulosa-y-biomasa-transformaran-el-norte-de-corrientes/?mkt_hm=11&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 5. Kofpi와 파라과이 아순시온 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2018.5.18.일자 / 파라과이)



Kofpi측에서는 , 원장 구길본, 법인대표 임민우 , 파라과이 대학교 농업학과 대학장 Luis Guillermo maldonado , vice decano Jorgen Daniel Gonzalez Villalba 그리고 학과장 Mirtha vera de Ortiz가 참석했다.

Kofpi(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원장 구길본)은 한국 산림 공공기관으로 2012년 Kgpa Paraguay S.A.로 법인설립을 했으며 2016년 파라과이 대표자 임민우로 KOFPI Paraguay S,A로 바뀌었다. 약 3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Caaguazu주와 Cordillera주에서 유칼립투스 시범 조림을 하고 있고, 또한 프로젝트로 인한 수익으로 지역 주민과 학교에게 기부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임업진흥

원은 해당 대학의 산림학과 교수 및 학생에게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및 초청 연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파라과이 현지법인에서 현장실습 및 인턴기회 또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아순시온 국립대학은 파라과이 임업의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임업진흥원 구길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임업진흥원은 파라과이 유수의 대학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고 우리 산림기업들이 남미 조림 및 목재산업 진출을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 Kofpi와 Infona 간에 협약

협약은 오늘 아침 INFONA에서 가졌고, Infona 임시청장 Fredis Estigarribia, Kofpi측은 원장 구길본과 파라과이 법인대표 임민우가 협약을 서명했다.

Kofpi Paraguay S.A는 파라과이 산림업에 발전을 위해 1만ha의 조림을 할 것이다. 그리고 Infona는 Kofpi의 기술고문을 약속한다.

<https://www.lanacion.com.py/pais/2018/05/18/firman-acuerdo-de-cooperacion-entre-kofpi-y-la-facultad-de-ciencias-agrarias/>

## 6. Infona와 Kofpi간에 협약 (Infona 공식 사이트)

(2018.5.18.일자 / 파라과이)



본 협약은 INFONA , 2017년 9월 27일 법령 제7792호로 임시 청장 Fredis

Estigarribia , 주소 a Ruta II Mcal Estigarribia KM 19,5 San Lorenzo, Paraguay; 한편 Kofpi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Paraguay S.A 대표자 임민우, 주소 Lafranconi 4260 c/ Mayor Leon Fragnaud, Asuncion Paraguay. 은 본 협약을 체결한다.

<http://www.infona.gov.py/index.php/noticias/acuerdo-de-cooperacion-entre-el-instituto-forestal-nacional-infona-y-la-korean-forestry-promotion-institute-kofpi>

## **7. Fepama(파라과이 목재협회)는 바이오매스 인증서가 비용이 들지 않고 의무적이지 않는 것을 제안하다.**

(2018.6.6.일자 / 파라과이)

법령 4.056/15의 내용은 2025년부터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조림목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Viceministerio de Minas y Energia, Seam(환경부), Infona(산림청),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산업부) 등의 기관에서 맡고 있다. Fepama는 정부에서 결정한 바이오매스 인증절차를 찬성하지만, 인증하는데 있어 자율성 및 무비용 원칙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Fepama는 3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1. 인증 비용 면제
2. 인증 자율성 보장
3. 공공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참여를 고려하여 산업 및 생산 분야에서 적용

<http://www.fepama.org/fepama-propone-gratuidad-y-que-no-sea-obligatoria-la-certificacion-de-biomasas-forestal/>

## **8. Helce에 따른 나무의 세계**

(2018.6.27.일자 / 파라과이)

Helce Melgarejo는 산업기술자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로 안경을 설계한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예술을 하고 파라과이의 예술이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제재소에서 일반적으로 남는 버려지는 목재 폐기물을 포함하여 세드로, 페페레브, 라파초, 팔로산토 등과 같은 조림목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안경을 제조하는 것보다 목재를 활용하면 더 적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밝히면서도 이러한 본인의 제품은 파라과이에서 평가 절하되어 있다고 말했다.



[http://www.hoy.com.py/emprendedores-de-hoy/el-mundo-de-madera-segun-helce?mkt\\_hm=20&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http://www.hoy.com.py/emprendedores-de-hoy/el-mundo-de-madera-segun-helce?mkt_hm=20&utm_source=email_marketing&utm_admin=8097&utm_medium=email&utm_campaign)

**9. BNF(파라과이 개발은행)은 임업 프로젝트를 위해 최대 12년 까지 연7.9%의 이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8.6.6.일자 / 파라과이)



파라과이 목재협회(Paraguayan Federation of Fernandan, Fepama) 본부에서

개최된 이사회 참석자에 의해 소개된 바에 따르면 파라과이 개발은행(National Development Bank, BNF)은 최대 12년 동안 4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임업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7.95%라고 한다. BNF를 대표하여 기업 은행 부서 관리자 인 블라디미르 아알라 (Wladimir Ayala)를 비롯하여 많은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이러한 대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대출프로그램 주요 정보>

- 대출한도 : 전체 투자금의 80%
- 조립프로젝트 투자자금 : 생장이 빠른 외래수종으로 시장선호도가 높고 프로젝트 수행 지역의 기후에 적합해야 함
- 이자율 : 7.95%

#### ○ 용재수 생산을 위한 조립 프로젝트

- 기간 : 12년
- 상환조건 : 1~4년차까지 거치 (이자만 상환)  
5~7년차까지 이자포함 원금의 5% 상환  
8~12년차까지 이자포함 원금의 17% 상환

<http://www.fepama.org/bnf-ofrece-financiacion-de-proyectos-forestales-con-79-de-interes-anual-hasta-12-anos-de-plazo/>

### 10. INYM은 자사의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조림지에 대한 세심한 조사를 수행한다.

(2018.7.6.일자 / 아르헨티나)

Yerba Mate 작물의 재배 범위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소유자와 각 토지구획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이래 Yerba Mat 국립연구소는 항공사진 분석 조사, 실내 문서 작업 및 yerba mate의 현장 조사 등의 여러 항목을 결합한 GIS(지리정보시스템)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 개발은 Misiones주 및 Corrientes주에서 yerba mate작물 재배의 식별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각 작물재배에 대한 정의, 범주화 또는 각 토지구획 상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록 정확한 접근을 도와준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항공사진을 이용한 조사에서 시작된다. 이 정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통해 토지구획의 이미지를 조정하고 지적 데이터와 대조하여 각 소유자와 연결함으로써 각 작물재배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http://misionesonline.net/2018/07/06/inym-realiza-minucioso-relevamiento-plantaciones-sistema-informacion-geografica/>

## 11. San Isidro에서 라플라타 강(Rio de la Plata)의 자연 경관을 반영한 생태경관 조림 실시

(2018.7.24.일자 / 아르헨티나)



San Isidro시는 San Isidro항구의 공공공원에 약 300종의 다양한 향토수종의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생태경관을 조성하고 항구와 Ribera자연생태보존구역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도시계획청과 San Isidro시가 공동으로 수립·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180개 수종의 묘목을 심는 첫 사업이 착수되었다.

도시계획청의 Diego Augusto는 현장에서 “이 사업은 이곳에 묘목을 식재하기 위한 겨울의 첫 단계이다. 토착수종의 조림은 그 지역의 주요 특징을 나타내는 큰 심벌이 될 것이고 약 300종이 넘는 교목과 관목은 항구와 Ribera자연생태보존구역을 연결하는 향후 생태연결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https://www.eldia.com/nota/2018-7-24-18-59-0-san-isidro-impulsa-una-forestacion-para-reflejar-e>

## 12.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Abdo Benitez는 INFONA의 새로운 청장 임명을 했다.

(2018.7.5.일자 / 파라과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Mario Abdo Benitez은 이번 주 목요일에 INFONA(파라과이 산림청)의 신임 청장으로 Ing.Ftal.Cristina Alejandra Goralewski Hempel을 임명했다.

그녀는 2015년에 아순시온 국립대학교 산림학과를 졸업하고, FEPAMA(파라과이목재협회), UIP(파라과이청년상업인협회) 등의 주요 임원으로서 활동했고, 2016년부터는 남미 산림과학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신임청장 내정자인 Ing.Ftal.Cristina Alejandra Goralewski Hempel는 취임 후 파라과이 조림사업 확대에 대해 큰 포부를 밝혔다. 현재 파라과이에는 약 12만ha의 인공 조림지가 있지만 이는 파라과이 목재 소비량에 비해 매우 적다고 한다.

<https://www.ultimahora.com/abdo-benitez-designa-futura-titular-del-infona-n1303765.html>

### 13. 산림벌채의 허용이 아닌 토지 이용의 변화이다.

(2018.7.11.일자 / 파라과이)

파라과이 SEAM(환경부) 장관 Rolando Barros Barreto는 한때 큰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 Horacio Cartes가 개정한 산림법령 422/73의 대해 “환경단체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Chaco지역에서의 천연림 개발(토지개발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은 잘 실시되고 있다. 파라과이 법에는 토지의 용도변경(개발)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고 SEAM과 INFONA(파라과이 산림청)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벌채는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Chaco지역에서 행해지는 벌채행위 대부분이 천연림 벌채 후 신규조림을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긴 하나 벌채의 행위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지고 복구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매우 어렵다면서 대부분의 벌채가 토지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벌채라고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장관은 “대부분 보도는 환경단체들 입장에서의 판단이며, 실제로는 매년 4천ha의 숲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http://www.abc.com.py/nacionales/no-es-deforestacion-sino-cambio-de-suelo-1720685.html>

### 14. FEPAMA는 Abdo Benitez대통령의 임업분야 강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

(2018.8.16.일자 / 파라과이)

Fepama(파라과이목재협회) 부회장인 Rafael Carlstein씨는 파라과이 목재협회를 대표하여 대통령이 임업 부문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사를 밝혔다.

파라과이 대통령 Mario Abdo Benítez는 “우리의 천연 자원은 책임감 있게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삼림 벌채를 야기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구로써 재조림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취임식 날 연설의 일부로 말했다.



### Mario Abdo Benítez 대통령의 전체 연설 일부 요약

우리는 한 나라와 단합된 국민을 원합니다. 용서는 영혼을 고치고, 화해와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의 파라과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배경, 다른 배경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의 꿈을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각 세대에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파라과이를 통합하고, 가치로 통합하며, 이 단합이 우리 손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이르는 긍정적이고 결정적인 변화를 위한 도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납세자 기반을 확대하고, 세금 납부 불공정을 줄이며, 우리 경제의 공식화를 심화시켜 줄 수 있는 세금 정책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풍부한 교육 정책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고 보다 포괄적인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장려합니다.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합니다.

<http://www.fepama.org/celebramos-destaque-que-le-da-el-presidente-abdo-benitez-al-sector-forestal/>

## 15. 2018 Expo Madera 개최

(2018.9.18.일자 / 파라과이)



파라과이 목재 협회(Fepama)는 Mariscal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Expo Madera 2018의 공식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해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국가 당국, 해당 분야와 관련된 공립 및 사립 기관 대표, 노동 조합 지도자 및 주요 손님들이 참석하였다. 이 박람회는 산림 분야와 관련된 약 50개의 회사와 브랜드를 모았으며 전문가들은 아이디어, 연락처 및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교환 할 수 있었습니다.

<http://www.abc.com.py/edicion-impresa/sociales/inauguracion-de-la-expo-madera-2018-1741530.html>